2023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된 이진우 작가는 그가 자주가는 서울 강북구 어느 한 카페에 앉아있다. (사진=이지수 기자)

문학, '평생,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촬영 일은 제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이고, '문학이 저의 진정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하는 일 엄청 좋아하고, 촬영 감독의 꿈도 되게 크고요."

이진우(연극영화학 2013) 동문은 프리랜서 촬영 감독이자 작가다. <해적2>, <종이의 집> 등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작품이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허리 통증으로 촬영을 오래 쉬고 있던 차에 문학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는 그는 올해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됐다. 그간 신춘문예는 문예창작과나 극작과, 국어국문학과 등의 전유물로 여겨졌기에 프리랜서 촬영 감독의 당선 소식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독특한 이력으로 굉장한 재능을 지닌 이인(異人)으로 비춰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어느 한 카페에 앉았다.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카메라를 잡고 있는 그가 어떻게 신춘문예 당선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 '문학'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다소 늦은 나이 대학 진학 문학을 향한 이끌림은 예고 없이 찾아와

이진우 동문에게 대학 시절을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25살에 비로소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것. 그에게 20대 절반가량은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열렬히 좌절하던 시기였다. "과는 정하지 않았었고 무작정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험생활을 오래 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활을 지속했는데 계속 시험을 망치다 보니까 삶의 의욕 같은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에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좋은 영화를 보고 싶더라고요. 하루에 많이 보면 한 10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화에 관심이 생기게 됐죠.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싶어서 연극영화학과에 가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까지 이 동문은 시나리오를 쓰는 데 열중했다. 그러던 그에게 문학을 향한 이끌림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사실 시나리오를 잘 쓰고 영화를 잘 만들고 싶어서 문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시나 소설을 제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학년이 된 그는 본격적으로 시와 소설을 쓰는 데 집중했다. "표현이 좀 거북할 수 있는데 거의 배설하듯이 썼던 거 같아요. 공모전, 대학 문학상, 문예지 다 알아보고 제출 날짜에 맞춰서 쓰니까 일단은 완성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1년 동안 단편 소설만 한 6개 썼나? 시는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 많이 썼어요."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이 동문에게 단체 활동이 주였던 연극영화학과 생활은 사실 녹록지 않았다. 그중 '철하'는 과에서 드물게 마음 맞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이 쓴 글을 남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도 '철하'에게만큼은 자신이 쓴 글을 선뜻 내어줬다. 배철하(연극영화학 2014) 씨는 "(진우 형이) 한 번씩 주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쉽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글을 받으면 최대한 어떤 점이 어떻고, 이 부분은 어떻고 전체 느낌은 어떻고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려고 했어요. 진우 형은 (제가 했던 얘기들이) 본인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는데, 그냥 같이 놀았습니다." 그는 친구들 덕에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감정이 충만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대학 시절 써둔 시 신춘문예 기틀 마련 '리듬감'에 신경 기울였다

당시에 써둔 글은 이번 신춘문예를 도전하는데 초석이 됐다. "2018년에 졸업하고 5년 만에 제대로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평소보다 오래 쉬게 됐는데, (쉬는 동안) 제가 옛날에 작업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오랜만에 글을 다시 보면 남이 쓴 글처럼 보여요. 되게 이상해요. '내가 이런 것도 썼었나?'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누구나 두고두고 꺼내어봐도 생생한 순간 몇 개쯤은 있다. 그가 다시 꺼내든 작품 중에서도 그런 작품이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작품을 골라 고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살짝 문장만 다듬었는데, 쓰다 보니 거의 모든 문장이 바뀌고 내용, 주제 다 바뀌다 보니 다른 시가 됐죠." 시를 쓰며 특히나 신경을 기울인 부분은 '리듬감'이었다. "장르는 다르긴 하지만 시나리오 쓰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감각을 얻은 것 같아요. 계속 입으로 읽고, 그냥 쫑알대는 게 아니라 낭독하듯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이러한 노력은 신춘문예 심사위원을 맡은 두 시인에게도 전해졌다. 이들은 이진우 동문을 향해 "숙고와 머뭇거림에서 길어낸 사유를 자기의 리듬에 실어 전달하는 능력, 능숙한 악기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듯이 시를 연주할 줄 안다는 것은 분명 귀한 재능"이라는 극찬을 남겼다.

연극영화학과에서 쌓은 경험 훗날 많은 도움 받아

대학 시절, 연극영화학과 안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다. 애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촬영 감독이라는 직업뿐 아니라 '문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는 재학 당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부딪혔던 경험, 교수님 또는 친구와 교류가 현재까지도 문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효인(연극영화학)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번에 썼던 '멜로 영화'라는 시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간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에도 이 동문은 이효인 교수의 말을 빌려 설명하기도 했다. "저는 영감이라는 말을 잘 안 믿어요.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은 시나리오 쓴다고 하면 조각가가 멋있는 작업실 안에서 딱 작업물 세워놓고 닦고 조금 만져보면서 이런 건 줄 아는데, 다 쓴 치약 정말 뒤에서부터 안간힘을 써서 했을 때 정말 요만~큼 삐져나오는 게 시나리오라고. 머리가 그런 쪽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어야 영감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떠오른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득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동문은 문학을 '평생,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의 꿈은 문학인이 아니다. 문학을 하는 것이다. "이 악물고 하루에 서너 편씩 쓰는 것도 문학이고, 그냥 일하다 생각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누가 써보는 것도 문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생긴 새로운 목표는 '40살 되기 전에 첫 책을 내는 것'이다.